

Economy Brief

성장과 금리간 싸움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고금리-고유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 PMI지수, 자본재 수주 및 주간 신규실업청구건수 등 미국 주요 경제지표는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함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이미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지만 다행히 강한 성장세로 인해 국채금리 발작과 같은 현상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현 금리 수준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국채금리가 5% 이하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음. 국채금리 안정을 위한 대책을 베네통 장관 등이 내 놓을 수 있을지가 주목됨

고금리-고유가 부담을 이겨내고 미국 경제는 강한 성장세 유지 중

고금리-고유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요 경제지표는 큰 폭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9월 미국 S&P PMI지수는 58.4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지수가 모두 강한 확장세를 보이며 5년여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등 높은 금리부담과 고유가 속에서도 제조업 및 서비스 PMI 지수가 동반 강한 확장세를 기록한 것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 모멘텀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당사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 모멘텀의 바로미터로 간주하고 있는 투자 사이클 역시 강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8월 항공기를 제외한 비국방자본재 수주액은 시장 예상치 전월비 0.6%를 대폭 상회하는 1.6%를 기록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다. AI 관련 투자사이클 호조가 미국 경제의 성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음이다. 이 밖에도 주간 신규실업청구건수가 19만건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도 고무적 현상이다.

이에 따라 미국 애크랜타 연준에서 추정하는 3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를 보면 9월 25일 기준 전기비연율 5%에 달하고 있다. 아무래도 고금리-고유가 현상에도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은 AI관련 투자사이클과 이에 따른 낙수효과 확산으로 여겨진다.

그래도 금리 수준은 부담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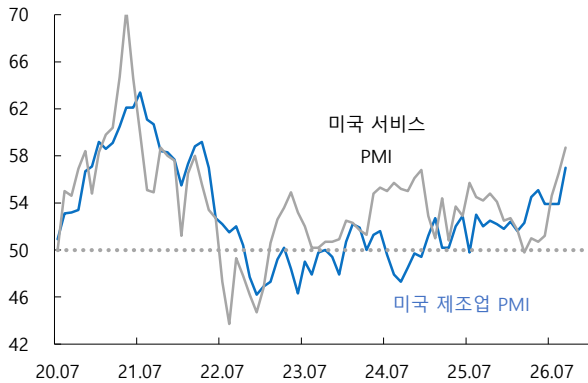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인해 미국 국채금리가 또 다시 급등했다. 주요 경제지표 서프라이즈로 25일 종가기준 미국 10년 국채금리는 24일 5.198%보다 소폭 하락한 5.160%를 기록했고 30년 국채금리(25일 종가기준) 5.490%를 기록했다. 10년 국채금리는 장중 5.223%까지 상승하면서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았고 30년 국채금리 역시 장중 5.501%까지 올라 2004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상보다 강한 미국 경제 성장세가 국채금리의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9월 금리인상 이후 미 연준의 10월 추가 금리인상 확률에 대해서는 시장 전망이 다소 엇갈렸지만 미국 경제지표 호조로 10월 추가 금리인상 확률은 64.2%까지 급등했다.

이처럼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이미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고 추가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이 커졌지만 다행히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로 인해 국채금리 발작과 같은 현상은 다행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 금리 수준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유가 추가 상승 등으로 국채금리 수준이 추가로 상승한다면 당연히 주식시장 등 각종 자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고금리 현상 장기화시 강력한 AI 투자사이클 지속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 미국 경제를 위시해 주요국 경제가 '중물가-중금리'국면에서 '고물가-고금리' 국면 초입에 진입하고 있음은 분명 부담스럽다.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 국채금리가 5% 이하에서 움직임 필요가 있다. 미 연준내 매파적 목소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채금리 안정을 위한 대책을 베네토 장관 등이 내놓을 수 있을지 혹은 유가 안정을 위해 미국이 이란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주목된다. 당분간 성장과 금리간 싸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림1. 고금리-고물가 부담 속에서도 9월 미국 제조업 및 서비스PMI 지수가 강한 확장세를 기록함

(지수)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미국 애틀랜타 연준의 3분기 미국 GDP 성장률 추정치는 9월 25일 현재기준 전기비 연율 5%

Evolution of Atlanta Fed GDPNow real GDP estimate for 2026:Q3
Quarterly percent change (SA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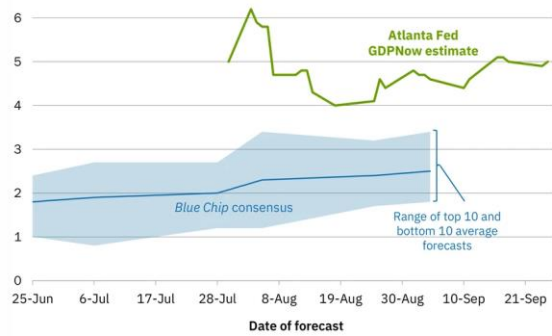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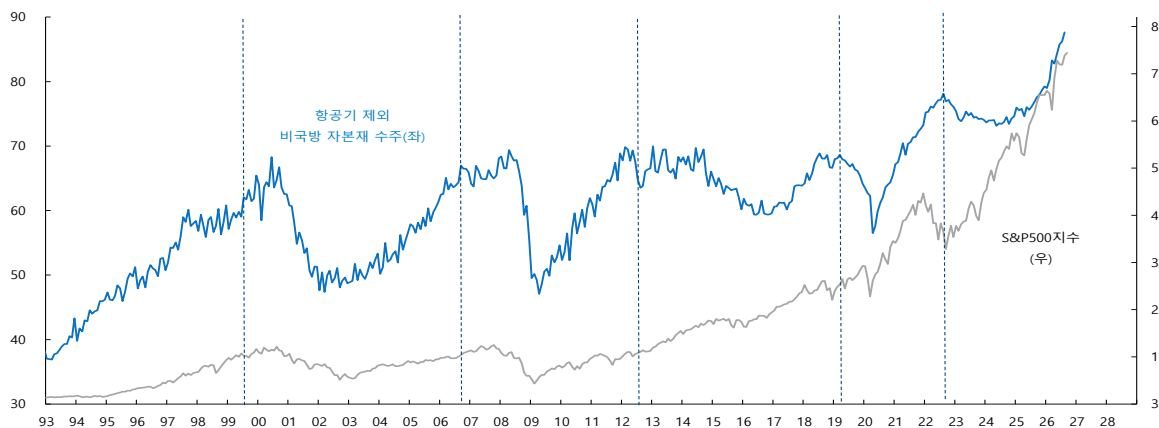


그림3. 강력한 미국 투자사이클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항공기제외의 비국방 자본재 수주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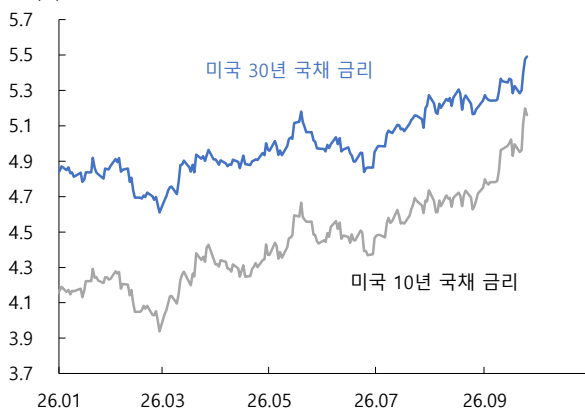
(10억 달러)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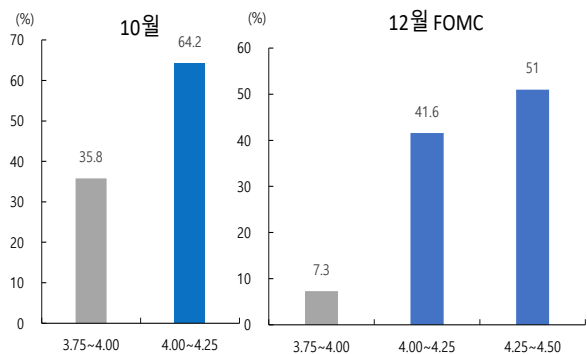
그림4. 경제지표 호조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동반 급등

(%)



자료: CME,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경제지표 서프라이즈로 10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확률이 큰 폭으로 상승함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